

듣고 생각하고 닦는 수행에서 부처님의 힘 나온다

원동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6> 관세음 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④

<수능엄경>에서 열거하는 25가지 수행법 중의 하나인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법은 부처님이 다른 수행법에 비해 가장 수승한 방법이라 설한 것이다. 이근원통을 달리 관음법문(觀音法門)이라 표현한다. 관음(觀音)이라 한 까닭은 관세음보살이 행한 수행법이라는 뜻과,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관세음보살과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 이근원통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爾時觀世音菩薩 即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세존이시여, 저는 셀 수 없는 갠지스 강의 모래의 수와 같은 집 전의 일을 생각해 보니, 관세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내었사옵나이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聞思修)도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世尊憶念 我昔無數 恒河沙劫 於時有佛 出現於世 名觀世音

我於彼佛 發菩提心 彼佛教我 從聞思修 入三摩地

두 가지 뛰어난 능력

처음에 듣는 성품 가운데서 소리의 흐름을 거슬러 들어가니, 소리가 없어지고, 소리(所)와 들어간 지혜가 이미 고요해지니, 소리의 동과 정(靜)의 두 모양은 전혀 생기지 않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점차 증진하여 듣는 근과 듣는 대상이 다하고, 들음이 다한 자리에도 머물지 않으니, 깨닫는 지혜(能覺)와 깨달아지는 대상이 공하여, 능소(能所)가 공함이 지극히 원만해져서, 공함도 공하여짐도 멸하자, 생멸이 이미 멸하여, 적멸한 경지가 앞에 나타났사옵나이다.

그러자 홀연히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여 시방이 원만하게 밝아지면서 두 가지 뛰어난 능력을 얻었사옵나이다.

첫째는 위로 모든 시방 부처님의 본래 깨어 있는 묘한 마음과 합하여 모든 부처님의 사랑의 힘과 동일한 능력이며, 둘째는 아래로 시방의 일체 육도중생과 합하여 모든 중생과 비양(悲仰)이 같음입니다.

初於聞中 入流亡所 所入既寂 動靜二相 了然不生 如是漸增

聞所聞盡 盡聞不住 (能)覺所覺空 空覺極圓 (能)空所空滅

生滅既滅 寂滅現前 忽然超越 世出世間 十方圓明 獲二殊勝

一者上合 十方諸佛 本妙覺心 與佛如來 同一慈力 二者下合

十方一切 六道衆生 與諸衆生 同一悲仰

32 순응력

세존이시여, 저는 관음 여래를 공양하며, 그 여래께서 가르쳐주시는 환술(幻術)처럼 듣는 성품을 혼숙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금강삼매(如幻聞熏聞修

金剛三昧)를 받들어 닦아서 여래와 사랑의 힘이 같기 때문에, 제 몸은 32순응력을 성취하여 모든 국토에 들어가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들이 삼마지에 들어가서 정진하여 무루법을 닦고 뛰어난 견해가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고요한 경지가 묘하게 밝아서 뛰어난 미묘함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독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12인연을 끊고, 인연이 끊어진 훌륭한 성품에 뛰어난 미묘함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연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사제(四諦)의 공한 이치를 얻고 도를 닦아 열반에 들려고 할 때, 뛰어난 성품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여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음욕에 얽힌 마음을 밝게 깨달아서 음욕의 경계를 범하지 않고 몸을 청정하게 지니고자 하면, 저는 그 앞에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천주가 되어 모든 하늘을 거느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자재한 몸으로 시방세계를 유행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자재한 몸으로 허공을 날아다니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를 구제하고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중생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사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하늘 궁전에 태어나서 귀신 부리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사천왕국의 태자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인간의 왕위에 오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주앙 받는 일을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장



그림 · 최주현

“ 소리를 거슬러 들으니 적멸경지 도달 부처님 사랑의 힘과 동일한 능력 얻어 순응법으로 다양한 몸 나누어 중생구제 이근원통은 가장 수승한 '관음법문' ”

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명언을 이야기하면서 청정하게 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국토를 다스리면서 방읍(邦邑)의 육송시비(獄訟是非)를 바로잡아 결단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재판신(審身身)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온갖 음악 등의 술수로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조절하여 기르면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계율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비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

든 금계를 지키려고 하면, 저는 그 앞에 비구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오계를 받아 지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또 여자가 스스로 오계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집안 살림살이로 출세해서 관저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황후의 몸과 재상 부인과 고위 관직의 부인과 정사(政事)에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남근(男根)을 허물지 않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동남(童男)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처녀(處女)가 그대로 처녀의 몸으로 남아 있기를 좋아하여 사나운 침범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앞에 동녀(童女)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하늘들이 하늘의 무리에서 나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하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용들이 용의 무리에서 나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용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야차들이 본 무리에서 떠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야차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건달바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건달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아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아수라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긴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긴나라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마호라가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마호라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중생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좋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을 닦고자 한다면, 저는 사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만일 사람이 아닌 무리로서, 형상이 있는 중생이나 형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하게 하옵니다.

이를 '묘하고 청정한 서른두 가지의 순응력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고 하오며, 모두 듣는 성품을 혼숙하여 수행하는 삼매에서 나온 무작묘력으로 자재하게 성취한 법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친견해서 차 한잔만 마셔도 말기암, 빙의, 난치병 등 일체 고통들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강의교재는 화엄경수행센터의 회주인 진귀 수행자가 출판한 화엄경 책으로 강의하며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천도재 등 일체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 잔의 친견만 합니다.

■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통이 사라진 사례자들의 동영상 및 사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 수행센터 문의 ☎ 1899-9532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탕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연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